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㉒ 강원도 강릉시 소금강 금강사 은행나무

반듯한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순간

인도 겸 차도를 따라가다 끝자락에 다다르기까지 금강사가 보이질 않는다. 널찍한 나무계단 위 小金剛(소금강) 표지석을 이고 있는 '대한민국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받침돌 뒤편도 단풍든 나무로 벽을 치고 있다. 이제 경운기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좁은 등산로로 들어가야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산행 차림에 당황하는데, 즐거운 탄성이 나온다. 도시 인근 산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람쥐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민감해 청정 지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귀염둥이가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다.

깊고 그윽한 계곡에 가을단풍이 내려앉아 흐르는 듯한 물살을 보며 걷는다. 잠시 뒤 '깃대종이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라는 안내판이 눈길을 잡아챈다. 그러면서 오대산 깃대종으로 노랑무늬붓꽃과 긴점박이올빼미 사진이 있다. 둘 다 보고픈 열망을 갖고 철다리를 건너 숲을 보니 또 다른 안내판이 주목을 요한다. '1569 율곡 유산(遊山)길 스탬프 보관함' 이다.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 이이는 16세 되던 1566년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른 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유학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금강산입산을 하게 된다. 그 이유를 풀어보면, 과거에 급제해 사회적 성공을 일굴 것이냐, 아니면 불교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겠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일단 도학(道學)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금강산에 있는 동안 남긴 노승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율곡이이가 불교를 떠나 다시 유교로 회귀한 연유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옮겨본다.

[율곡:"'소리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이것은 색(色)이오 공(空)이오." 노승:"색(色)도 아니고 공(空)도 아님은 진여(眞如)의 체(體)요, 이런 시로 어떻게 빗댈 수 있단 말이오."]



은행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금강사

전체 대화를 정리해 해석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글을 보면, "유교는 언제나 일상적 '언어' 로 말하지만 그를 통해 노리는 것은 '상대' 가 아닌 '절대' 입니다. 그 절대는 '일상성' 을 떠나지 않기에 오히려 불교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제가 불교를 떠나 유교로 향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아울러 노승을 설득시키려는 근본적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젊은 사람이 말을 걸었으니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 같은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 떠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소금강이 주는 아름다움에 진하게 빨려 들어가다 보니 길옆 돌계단 위로 금강사가 번쩍 나타난다.

하지만 문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걸려 있어 조금 더 직진해 일주문을 찾는데 느티나무 옆으로 돌계단이 나타난다. 오르니 곧바로 대웅전이 보이는 금강사다. 연혁이 궁금해 두리번거리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강릉시 소개글에 나온, 1964년 정각 스님이 창건한 절이라는 것만 되뇌고는 경내를 서성인다.

아담하지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대웅전의 기상은 주위의 험준한 산세를 단숨에 뛰어넘어 언제든 동해로 갈 수 있는 반야용선의 위용이다. 그 옆 금강사 현판을 달고 있는 요사채와 생명수 우물을 보호하고 있는 전각 사이의 장독대들이 불편한 산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건네준다. 그 뒤 삼성각 위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들도 따뜻한 병풍이 되어 생존지수를 올려준다.

율곡 이이가 1569년 이곳을 찾아 본래의 이름인 청학산 대신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다면, 학이 날개를 달고 나는 청학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금강사 부도 옆에 노랗게 단풍 든 은행나무에 선다.

20만 년 전 지구에 나타나 100년을 사는 생명체가 2억 년 전에 등장해 천 년 이상을 의연하게 사는 은행나무를 올려보니 말로 문자로 주고받는 인식의 세계가 초라해 보인다. 성균관 거목 은행나무가 실상은 살구나무 행(杏)을 오독해 벌어진 풍경이라고 하니 공자든 부처든 나무 아래에서 나온 말은 모두 하나이고 그래서 언어 따위는 피어나지 못하는 낙엽보다 못하는 듯하다. 은행알이 냄새가 나는 건 그 향기를 기꺼이 품어 번식을 시켜주었던 매개 동물이 이미 멸종이 되었는데도 그 그리움을 버리지 못해 남기는 절규이다. 그런데도 거의 사람의 삽목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은행나무에 대한 책임 앞에서 코를 움켜쥐는 행동만 일삼을 뿐 반듯한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인간종(種), 유구무언이다.

하산길에 귀한 다람쥐 조우를 염원했지만, 가녀린 물소리만 귓가에 들이친다. 금강산이든 소금강이든 차가 도달하는 사찰이든 걸어서만 가야 하는 산사이든 본래 그러한 진여(眞如)의 체(體)는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아닐까. 어디선가 바스락 다람쥐 움찔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㉑ 정일근의 색과 공에 대한 변주

色의 삶은 무엇, 空의 삶은 무엇인가?

색(色)과 공(空)에 대한 변주(變奏)/ 정일근

1. 색즉시공(色卽是空)

평생을 쪽잎 속에 숨은 푸른색을 찾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쪽빛을 자랑하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그의 푸른색을 보지 못했다. 그의 쪽빛은 세상 어느 그릇에도 고이지 않고 세상 어느 옷감 한 올도 물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돌아간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만 떠돌았다. 다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쪽빛에 물든 듯 그의 눈빛은 청(靑)에서 람(藍)으로 람(藍)에서 백람(白藍)으로 변해갔다. 어느 깊은 여름밤 그를 만나러 가다 홀로 광목에 쪽물을 들이는 그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둥근 항아리 삼아 온몸 가득 쪽물을 머금었다 다시 입으로 뿜어내며 무명 광목을 푸르게 푸르게 물들였다. 아아, 그분이 미륵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저러하려니 최초의 푸른빛이 퍼져 나와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속에 또 다른 푸른빛이 퍼져 나왔다. 그 빛 속에 다시 우주가 태어나고 그 우주 속에 새 빛이 태어나는 장엄한 탄생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꿈결 같은 시간이 흘러 새벽이 오자 그는 그의 쪽빛을 빨랫줄에 무심히 걸어놓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뒤 너무나 신비스러워 조용조용 다가가 그의 푸른색을 들추는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빨랫줄에는 아무런 형체도 색도 걸려 있지 않았다. 그 허공으로 내 몸이 일탈하고 있었다.

2. 공즉시색(空卽是色)

보석반지는 영롱한 보석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손가락이 들어갈 허공이 있어야만 보석은 비로소 반지가 된다. 빛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는 텅 빈 허공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

–정일근 시집, 《경주 남산》, (주)문학동네, 1998–

불교는, 모든 것이 시의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된다. 아무리 관념적인 것일지라도 그려놓고 나면 당당한 실체가 된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한 명이 정일근 시인이다. 이 시만 봐도 알 수 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은 퍽 어려운 관념적 불교용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시인(작가)이 그리면 눈으로도 잡히고 손으로도 만져진다. 분명 "쪽잎 속에 숨은 푸른색을"[색(色)] "찾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누구도 그의 푸른색을 보지 못했다"[空(공)]. "그의 쪽빛은 세상 어느 그릇에도 고이지 않고 세상 어느 옷감 한 올도 물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기[空(공)]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깊은 여름밤 그를 만나러 가다 홀로 광목에 쪽물을 들이는 그를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몸을 둥근 항아리 삼아 온몸 가득 쪽물을 머금었다 다시 입으로 뿜어내며 무명 광목을 푸르게 푸르게 물들였다"[色(색)]. "아아,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미륵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色가(색)]였고, "그가 사라진 뒤 너무나 신비스러워 조용조용 다가가 그의 푸른색을 들추는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빨랫줄에는 아무런 형체도 색도 걸려 있지 않았다"[空(공)]. (그리고) "그 허공으로 내 몸이 일탈하고 있었다"[空(공)]. '색즉시공' 을 (가시적으로) 기막히게 잘 풀어놓았다.

다음 연의 '공즉시색' 은 또 어떤가. "보석반지는 영롱한 보석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空(공)] "손가락이 들어갈 허공이 있어야만 보석은 비로소 반지가 된다[色(색)]". "빛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는 텅 빈 허공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 정말 기막힌 묘유(妙有)의 '공증시색' (空卽是色)이다.

부처님과 부처님 섬기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필자도 정일근 시인의 이 시를 보면 주눅이 든다. 도무지,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이렇게 공과 색을, 색과 공을 마음대로 시로 주무를 수 있을까. 어설픈 공부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경지다.

어설픈 붓질은 관념을 관념으로 덮어 더 깊은 관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 그 용어가, 관념이 무슨 관념인지, 뜻인지, 언제 쓰이는지, 어떤 세계인지, 상징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일근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잘 알고 이 시를 썼다.

사실은 〈경주 남산〉 시집 전체가 불교시로 가득 차 있다. 시집 속의 2/3가 불교를 소재로 쓴 작품들이다.

아니, 수많은 석불과 석탑으로 가득 찬 경주 남산 전체를 이 시집으로 옮겨놓았다. 그것도 수밀도처럼 구체적으로 매우 깊게. 이 시집 한 권만 읽어도 경주 남산 왕정골과 절골과 부처바위골과 탑골과 미륵골과 천암골과 철와골과 국사골과 오산골과 대지암골과 쑥드듬골과 승소골과 천동골과 봉화골과 천룡골과 용장골과 비파골과 약수골과 삿갓골과 삼릉골과 선방골과 기암골과 유느리골과 포석골과 장창골과 식혜골 등을 다 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실제 답사를 가고 싶은 독자는 이 시집을 꼭 한 번 읽고 가기 바란다. 훨씬 밝고 감동적인 답사가 될 것이다.)

같은 시집에 실린 다음의 시들을 보면 정일근 시인이 이 시집 한 권을 펴내기 위해 경주 남산을 얼마나 싸돌아다녔는가(무엇 때문에, 무슨 고통 때문엔 줄은 모르지만, 정일근 시인은 〈후기〉에서 "어려운 때 시집을 묶어준 출판사에 감사한다."고 적고 있다)를 알 수 있다.

정일근 시인이 이 시편들을 쓸 적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위 시에 나오는 "오래지 않아 불혹의 생이 찾아오려니"이다. 40대를 앞두고 정일근 시인에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사회적 아픔이었을까, 개인적 아픔이었을까, 삶에 대한 아픔이었을까? 사실 필자도 불혹 직전까지 암흑의 시대를 살았다.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할 정도로 우울과 자책과 자학의 시절을 살았다. 정일근 시인과 필자는 동년배인데다, 그 무렵 자주 만나고 살기도 했다. 그 시절, 그 아픔(고통)들은 우리 시대가 감내해야 할 필연적인 아픔(고통)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일근 시인의 〈경주 남산〉을 읽은 몇 해 뒤, 필자도 경주 남산을 답사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이라는 산문집 속에 한 꼭지 넣어 펴낸 바 있다. 정일근 시인,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시인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